

발로 뛰어 글로 써낸 향토민예의 정수

「江原의 美」 펴낸 유용태씨

박물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전직 경찰서장이 전통민예품의 아름다움을 찾아 책으로 상재했다. 지난해 강릉경찰서장직을 끝으로 경찰생활을 마친 유용태씨(52, 전 강릉경찰서장)가 펴낸 책은 「강원의 美」(강원일보사).

이 책은 전반적인 한국 민예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동시에 강원도 특유의 미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채롭다. 또한 수록된 민예품들이 오랜 수집기간을 거쳐 모은 것이어서 저자 유용태씨의 전통민예품에 대한 많은 정성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선조의 삶과 민예품의 아름다움 조명

「강원의 美」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강원의 민예품' ('월간대백' 1988. 2~1993. 9에 게재)에 관한 것이고 그 둘째는 '강원근대서화인'(강원일보 1986. 3~5에 게재)들을 다룬 것이다.

'강원의 미'는 강원반, 장기, 떡살과 다식판, 방산사기, 땃돌, 승경도, 반단이, 강릉수보, 춘자별전, 민화와 민서, 목기, 충효등, 능화판과 보판, 자석연과 녹색연, 향토오락기구, 서민용신발, 지승민예품, 호패, 효부의 면류관, 효도주머니, 목침, 패물함, 다듬잇돌, 지수, 부적과 부작, 나무기러기, 옹기, 부시, 옷가락, 되와 말, 자와 거울, 자물쇠, 봉합인, 복숭아표주박, 복숭아머통, 병풍, 목탁, 장식, 망와, 무낙관서화, 찬탁과 찬장, 버선본집과 바늘꽃이, 수결인, 등기, 담배함, 누비쌈지, 반진고리와 예단상자 등을 다루고 있다.

각 민예품들은 대부분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물품들이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찾지 않는다. 단지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강원도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움을 선별적으로 가려내고 있는 것이다. 원색사진과 함께 실린 글은 각 물품의 원류와 변천, 산지와 용재, 제작공정, 특성(강원도 물품으로서의 특성을 주로 다룸)과 어떤 물품에는 그 물품을 얻게 된 과정이나 그 물품을 제작한 장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강원이 낳은 서화인에 대해서도 저자 유용태씨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墨梅連幅을 그릴 때 다섯자루의 붓에 먹을 묻혀 한 손에 쥐고 구도가 잡히면 줄기에서 가지까지 단숨에 그려나갔고, 연필이 길어 팔이 미치지 못하면 붓을 떼지않고 움츠렸던 몸을 훌쩍 날려 그랬

다고 해서 '장마철 두꺼비'라는 별호를 얻은 此江 박기정화백을 비롯해서 晚齊 홍낙섭, 玉藍 한익동, 石崗 황성규, 桂南 심지황, 少南 이희수 등의 화풍과 서체, 그리고 그들의 생애에 대해 개괄을 해주고 있다. 이들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시대때 강원의 화가 내지는 서예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물들이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행적에 대한 자료가 없어 유용태씨의 이번 글은 끊어진 강원의 화맥을 잇는다는 의미보다는 한국미술사의 한 장을 이은 작업으로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고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9할 이상이 우연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의 이력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듯이 그는, 고미술은 고사하고 전통민예와도 거의 담을 쌓고 살아왔다. 적어도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다.

"송글송글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맛"

그가 대학을 졸업한 것은 현대사의 격동기라 불리던 4·19직후, 고려대를 다니던 그가 전공으로 했던 공부는 정치학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혼란한 만큼 '정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연구하던 그는 졸업과 함께 선뜻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한 발 내딛은 것이, 얼마전까지의 평생직업이었던 경찰이었다. 당시 학사경찰제도가 있어서 그는 제 1기로 경찰에 입문한 것이다.

어엿한 경찰이 되어서 그가 처음 부임한 곳이 강원도. 지난해 강릉경찰서장직을 마지막으로 33년간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강원도를 전전하며 그는 경찰직을 수행했다. 특히 그가 맡은 보직은 그를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업무를 보게 하지 않았다. 그는 주로 경찰의 감찰업무를 맡았는데, 그 때문에 강원도 골짜기란 골짜기, 마을이란 마을 등 도내 파출소가 있는 곳은 모두 뒤지고 다녀야 했다. 경찰이 있는 곳이 모두 그의 일터가 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강원의 美'가 있는 곳이 전부 그의 일터가 된 격이다. 지금 그가 수집해놓은 민예품도 당시에 수집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용태씨와 고미술이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 둘 사이에는 유용태씨의 부친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의 부친은 일제시대때 광학서포라는 서점을 운영했던 인텔리였다고 한다.

"어른이 고미술품 등을 모으는데 취미를 갖



유용태씨.

고 계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취미의 단계를 넘어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집벽을 갖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버님께 고서화나 기타 민예품을 모아 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비록 대학에서 공부는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1967년경부터 수집벽이 발동, 닥치는 대로 민예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때 처음 고르기 시작한 것이 옛날돈이나 딱지본이라 불리는 소설책 등이었다. 그는 당시의 민예품 수집에 대한 감상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古老, 村婦들과의 대화와 구중, 고택에 전해 내려오는 손때묻은 고문서나 민예품을 접할 때마다 송글송글하면서 감칠맛 나는 그 맛과 맛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용태씨는, 손때묻은 민예품에서 유추해낸, 강원이 갖고 있는 미의 특징을 몇 마디 말로 지적한다.

그 첫째가 외형상 화려하더라도 그 민예품을 이루고 있는 재료는 질기고 강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강녕이짚신의 경우, 짚신을 신어보고 만들 수 있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막상 강녕이짚신을 알고 있는 어른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유용태씨가 말하고 있는 강녕이짚신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땅을 밟던 짚신이며, 그것도 그가 말하는 강원도적인 맛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강원도의 산물이다.

"강원도 짚신의 특징은 옥수수짚신(강녕이짚신)이다. 옥수수짚신은 옥수수잎으로 엮어 만드는 짚신인데 국내의 어느 지방에서도 별

로 볼 수 없는 제품이다. 옥수수잎을 쪼개어 벗겉으로 만들듯 엮어 나가는데 벗겉신 만들 기보다는 좀 까다로우서 경험과 훈련을 요한다. 벗겉신에 비해서 질기고(耐久性) 비가 오는 날 신어도 흡수력이 적어서 가볍고 경쾌한 기분을 주는 장점이 있다.

옥수수겉신의 종류 가운데 '덧신'이라는 게 있는데 발간등을 덮어 감싸듯 만들어 비가 올 때도 발등에 물이 덜 튀어오르고 한겨울 두메 산골에서 쌓인 눈위를 걸어가도 눈이 덜 묻어 방습, 보온의 효과가 있다."

질기고 강한 재료에 건강미 담아

강원도 몇의 두번째는 건강미다. 민예품들이 질박한 민중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기에 그 건강미는 더 눈부실지 모르겠다. 강원도지역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민예품 중에 남근형떡살이 있다. 떡살이라면 선조들의 유물 가운데 가장 진한 손길, 입김 그리고 끈끈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는 것이고, 남정네는 정성들여 나무를 자르고 깎고 온갖 솜씨를 발휘해 만들면 아낙네는 수복강령을 축원하는 '살'을 박은 것이 바로 떡살이다. 남근형 떡살은 바로 남정네와 아낙네의 삶 그리고 그 속에 투영된 종교적인 면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강원도의 건강미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되기도 한다. 유용태씨는 남근형떡살의 발생전설을 이렇게 기술한다.

"남근형떡살은 주로 삼척군 원덕면 일원의 바닷가에서 발굴되며 바닷가의 남근승배 민속인 해랑신전에서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400여년 전 서로 연모하던 처녀 총각이 하루는 총각이 태워다 준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한 처녀가 해삼 미역 등을 가득 따가지고 육지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갑자기 기상변화로 배를 띄울 수 없게 되자 처녀는 추위와 허기에 지쳐 그만 외딴섬에서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마을에는 흉어와 뱀을 번개가 속출하니 처녀의 원혼을 달래고자 나무로 남근을 깎아 바치고 치성을 드렸던 바 씻은 듯 번개는 없어지고 풍어가 계속되었다."

유용태씨는 이어서 "처녀의 영정을 모신 해신당 앞 神樹에 주렁주렁 매달린 목각의 남근과 바닷가에서 제사 또는 잔치때 쓰이는 남근형떡살과는 '용제, 조형, 쓰임'을 추찰할 때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도내 해안지방의 '옛 민예품의 원류'를 考究함에 있어서 맥을 짚고 정보를 얻어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남근형떡살 이외에도 강원도의 떡살은 민속신앙과 각별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영동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명절이나 잔치때면 부적을 새긴 나무떡살로 떡을 찍어 먹는데, 이 부적무늬떡살은 영동해안지방의 三願祭(지신제, 천신제, 해신제) 등 주로 무제에 쓰여질 떡에 찍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늬의 대부분은 善神守護 千災雲消의 기원을 담은 뜻의 무늬라고 한다.

유용태씨가 제시하는 세번째 강원도의 미는, 완성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실제생활에서 요구되는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가 제시하는 예는 늘상 우리 곁에서 오락기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던 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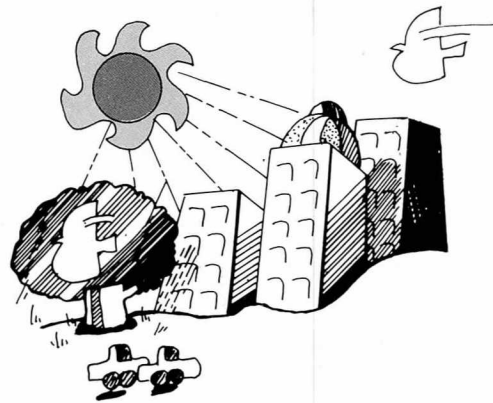
"강원도 장기의 특성은 장기말을 서로 다른 용재의 재색과 서체로 被我를 식별케한데 있다. 춘천 원주 지역에서는 단단한 대추나무 박달나무 회양나무 그리고 영동의 강릉 삼척 지역은 감나무 회양나무 들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청홍색의 글씨와 조각을 하기 전에 나무의 바탕인 材色을 가지고 식별을 용이하게 만든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강원의 미'에서 '강원의 정신' 발견

강원의 미에 대한 특징을 나열하면서 유용태씨는 자신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함께 말한다. 민예품을 수집하기는 그전의 일이지만 글을 쓰게 된 데는 그가 주동이 돼 '예맥고미술회'를 창립(1974)하면서부터다. 고미술 애호가들이 모여 소장품전시회와 월례회를 갖고 연구발표를 통해 향토문화제의 '알고' '찾고' '가꾸기' 운동을 펼치는 예맥고미술회는, 그러나 강원고미술에 관한 문헌이나 자료가 너무나 박약해서 항상 논의에 제동이 걸리곤 했다.

"워낙 자료가 없다보니 전시회 하나 갖는데도 일치된 의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회에 전시될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가의 이름도 예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변색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글쓰기이지만, 이제 유용태씨의 글은 단순히 화가의 이름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민예품이나 한 폭의 그림에서 강원도의 정신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네거리의 늘 푸른 소나무로 서 있고 싶습니다

꼬-끼-오-

새해 벽두를 알리는 닭들의 울음소리가 잠들었던 강산을 흔들어 깨우고, 소박한 꿈과 건강을 기원하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야-호 소리가 온 도시에 찻터찻터 울려 퍼집니다. 새해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한술의 새해는 한 그루 넉넉한 소나무의 정신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변함없는 노력과 깨끗한 의지로써 광화문 네거리의 늘 푸른 소나무로 서 있고 싶습니다.



나태한 정신을 서릿발처럼 일깨우는,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의 진주. 여러분의 원고를 더욱 빛나게 헤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드리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